

‘메이드 인 광주’ 새로운 희망 봤다

광주시 첫 CES서 공동브랜드관 9개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의지 강 시장 “혁신 성장 지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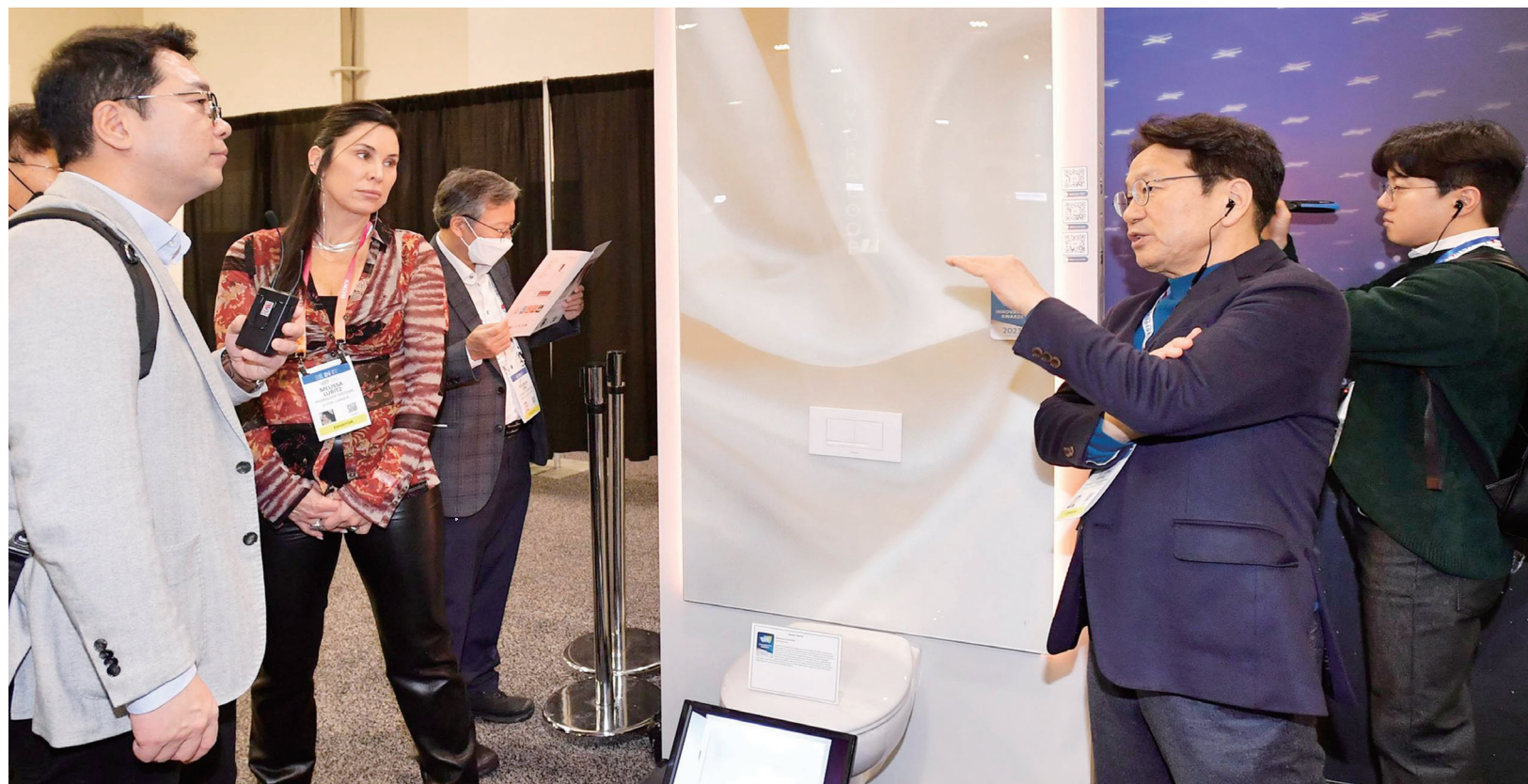
광주 공동브랜드 지엘(GIEL) 기업들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메이드 인 광주’ 제품을 선보이며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기업 9개사를 이끌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3에 처음으로 참가, 광주의 첨단 기술력을 알리고 수출 계약과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받았다.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광주 공동브랜드관 개관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시의회 의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기업인 등 광주 대표단 20여명과 김영안 LA 총영사, 에드워드 손 LA 세계한인무역협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이무형 부사장과 LG 전자 최호영 부장 등도 참석, 광주의 가전기술과 지역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을 더했다.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에는 ㈜디케이의 벽걸이 공기청정기, ㈜벤텍프론티어의 공기청정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 혁신상 수상 기업관을 찾아 혁신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 ㈜쓰리에이치굿스의 원격외선 히터 무풍난풍기, ㈜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 아이리핏(㈜아이콘)의 살균건조기, 티아이피인터내셔널의 차량용 공기청정

기, ㈜현성오토텍의 인공지능 조리기, ㈜이드원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인디제이의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 등 9개 기업, 15개 제품이 선보였다.

홍보관에는 해외바이어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공기청정 및 살균 제품이 주목받았다.

바이러스에 특화된 ㈜벤텍프론티어는 공기청

정화살균기, 아이리핏의 뒷병 살균기, 공기 청정·살균 기능이 결합된 ㈜디케이의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

노약자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은 IoT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비접촉 출입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시스템 제품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CES 참가로 다음을 만드는 엄청난 기회를 경험했다”며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찾았다”고 해외진출 의사를 밝혔다.

(주)쓰리에이치굿스 윤재순 대표는 “CES 참가 전에는 경쟁자가 워낙 많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됐다”면서 “오히려 현장에 와보니 ‘한국적인 제품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이번 경험을 통해 미래 트렌드 파악 및 혁신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드디어 광주가 CES를 찾았다. 광주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CES 기조연설에 나온 ‘존 디어’는 농사 쟁기로 시작해 자율주행트랙터를 만들어냈다. 무려 186년이 걸렸고 광주의 혁신도 기업의 혁신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혁신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1만4천여대”

김승남, 농업기계화 촉진법 발의 “지자체 수거·처리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8일 “전국 1만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792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



김승남 의원은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한다.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가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3,200대 중 64.1%인 2,329대를 폐차시키는 데 그쳤다”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폐기처분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 여부를 판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 자동차 2,200대 ‘유령자동차’

사망자 명의 등록

전남 도내 자동차 2,000여대가 사망자 명의로 된 유령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남도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2,200여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은 본 소유자가 사망했는데도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속칭 유령자동차로 분류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시군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 여부를 판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재민 기자

“중대선거구제 광주가 나서야”

박지원, ‘DJ라면’ 특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지난 7일 “지금은 일치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때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광주시장 초청 특강을 진행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서 이겨야 다음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있었다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라’고 했을 이야기가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냐”며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민주주의의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단합해야 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죽을 고비를 넘겨 대통령이 됐지만 화합과 포용을 해



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쪽과 같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치개혁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광주 현역 국회의원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레서는 안 된다”며 “잘 하는 사람은 짝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짝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고,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광주가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한 손으로는 싸우고, 한 손으로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